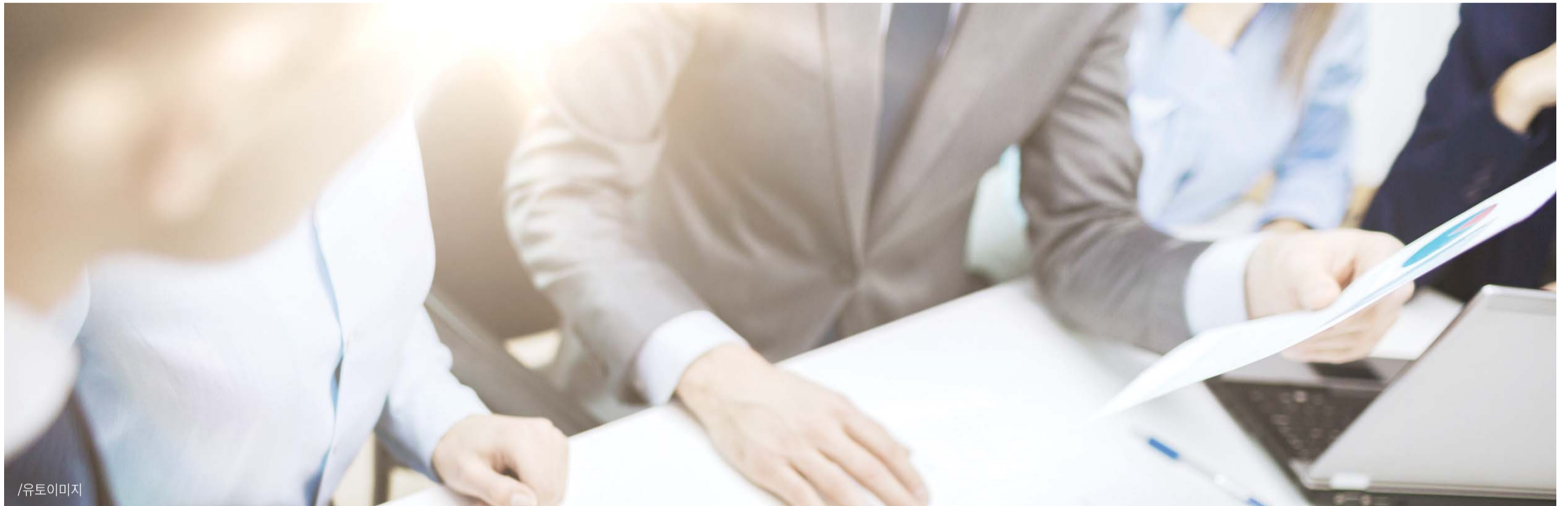


미래먹거리 선점 나선 기업들



키플레이어 ‘MZ·여성·재무통’

MZ임원 (가나다순)



배범희
삼성전자 DX 부문
HW기술그룹 상무



우정훈
LG전자
수석전문위원 상무

오너가 3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주 사장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백인환
대원제약 사장

여성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



이영란
동원그룹 상무보

CFO



박지환
LG CNS CFO



이창실
LG 에너지솔루션 CFO

세계 경영혁신 가속

경기침체와 전염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오히려 ‘위기’는 기업으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차체가 클수록 나아가는 방향을 전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기업이 단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기본이 있으니, 바로 ‘사람’의 중요성이다. 기업들은 다가오는 세상을 대비하는 첫 단추로 ‘인사’를 택했다.

이병철 삼성 초대 회장도 1980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 자리에서 “기업은 사람”이라며 “기업(企業)은 문자 그대로 업(業)을 기획(企劃)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 소박한 원리를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의 말은 2023년에도 유효하다. 불확실성의 시대 속, 재계는 이전보다 임원들에게 더 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MZ, 기업 발전에 추진력을 더하는 힘
임원의 자리에 ‘5060 남성’ 사진만 나열되는 시대는 ‘과거’로 불리게 됐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여성과 MZ 임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 기준은 30~40대 젊은 임원들이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임원 중 1980년 이후 출생한 MZ세대 젊은 임원 숫자도 100명을 넘어서며 1%를 넘었고, 지난해에는 10%를 넘어섰다. IT가 시대의 변화를 이끌면서 IT에 능통한 인재·임원들이 필요한데 MZ세대가 이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난해 총 187명(부사장 59명, 상무 107명, 펠로우 2명, 마스터 19명 등)을 승진시켰는데 기술 분야 인재를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선임했다. 30대 상무는 3명, 40대 부사장은 17명이 나왔는데 2021년 30대 상무 4명, 40대 부사장 10명보다 큰 규모다. 상무 승진자 중 최연소는 배범희 DX부문 생산기술연구소 H/W기술그룹 상무로 그의 나이는 2023년 기준 38세다. 세계 최초 RF 신호 전송 등 미래 주력 기술 확보와 다수의 논문·특

허 출시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최연소 부사장 승진자는 이정원 DS부문 S.LSI사업부 Modem개발팀장이다. 올해 45세인 이 부사장은 모뎀 시스템 전문가로 모뎀 알고리즘 개선과 설계 최적화 등을 통해 5G 모뎀 성능 향상 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LG는 신규 임원 114명 가운데 92%를 1970년대 이후 출생자다. 최연소 임원인 우정훈 LG전자 수석전문위원(상무)은 1983년생이다. SK하이닉스는 1980년생인 박명재 담당을 차세대 기술 인재로 발탁하며 미래 먹거리 개발에 추진력을 보였다.

◆‘MZ오너’, 신사업 선두에 선다
여기에 오너가 ‘젊은 피’들이 일찍 경영에 참여하며 MZ 임원층 강화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들 역시 신사업 부서로 배치되는 등 기업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은 한화솔루션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태양광 사업 등을 성공시켜 경영능력을 입증 받았다. HD현대 및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정기선 사장도 82년생으로 젊은 리더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그는 자율주행 선박이나 로봇사업 같은 신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ESG경영’ 역행할 수 없는 흐름 재계, 다가오는 미래 ‘인재’ 대응 성과·능력 중심 인사가 조 확산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장남인 이선호 경영리더(임원)에게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을 맡기며 유통산업에 힘을 더한다. 임원에서 실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로, 그는 글로벌 식품 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 신사업 투자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젊은 경영인 등용도 눈에 띈다. 백인환 마케팅본부장 전무를 경영 총괄 사장으로 선임한 대원제약은 선임했다. 백 신임 사장은 1984년생으로 오너 2세인 현 백승호 회장의 장남이다. 파먹는 감기약 ‘콜대원’의 성공으로 입지가 탄탄해진

백 신임 사장은 해외 시장 개척 성과와 더불어 사업다각화의 책임자로 선택됐다.

◆‘능력 있는 여성’ 임원 증가… ‘추세’ 이자 ‘대세’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 되자 여성 임원들이 속속 등장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임원이 경영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 여성 직원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가 됐다.

2025년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이러한 기조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재계 관계자는 “ESG에 부합하는 인재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엔 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임원의 최우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의 여성임원들이 두각을 드러냈다. LG생활건강은 이정에 부사장을 사장 승진과 동시에 신임 CEO로 내정하며 5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사장을 배출했고, 삼성전자는 이영희 글로벌마케팅실장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두 기업 모두 오너일가 외 여성 사장을 배출했다.

동원그룹은 이영란 동원씨앤에스 유통영업부장을 상무보로 승진시켰다. 이 신임 상무보는 동원그룹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기도 하다. 동원은 “유통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판촉 역량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기업의 유리천장은 두텁다. 아직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1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여성 인력 등용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갭간을 지켜라’… CFO에게 거는 기대

여기에 불황을 이기기 위해 기업은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기업 재무기반을 다져달라는 임무를 맡겼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래 사업 준비에 투자할 자본이 마를 것이라는 공포가 재

계를 압박했다. 결국 자금을 담당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벌비즈니스 대표 자리에 이규복 현대차 프로세스혁신사업부 전무를 올리면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신임 대표는 유럽 지역 판매법인장 및 미주 지역 생산법인 CFO를 경험한 재무, 해외판매 기반 전략기획 전문가로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발전 전면에 나선다.

오너가 3세 등 3040 젊은 임원 증가 경기침체 지속에 CFO 역량 중요해져 유리천장 여전히 두터워… 개선 필요

LG그룹도 차동석 LG화학 CFO,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CFO, 이남준(㈜ LG 재경팀장, 박지환 LGCNS CFO 등)이 경영 전반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재경 전문가인 차 사장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대의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재무 쪽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투자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화가 높아지면 미래 먹거리 확보도 더 원활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